

2018서울시 1회 7급 B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1) '살짝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같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

- ① 덮밥 ② 얼룩소 ③ 딱딱새 ④ 섞어찌개

문1)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

◆ 합성어: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집안', '돌다리' 따위이다.

◆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어순이나 배열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어순이나 배열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합성어.

◆ 살짝곰보: 살짝(부사) + 곰보(명사) - **부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비통사적 합성어**

◆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우리말의 어법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살짝곰보: (명사) 약간 얇은 얼굴. 또는 그 얼굴을 가진 사람.

① 덮밥: 덮(은) + 밥 -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되어 있어 비통사적 합성어.

② 얼룩소: 얼룩(명사) + 소(명사) -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통사적 합성어

③ 딱딱새: 딱딱(부사) + 새(명사) - **부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비통사적 합성어**

◆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우리말의 어법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부사: 부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동사, 문장 등을 꾸며준다.

◆ 딱딱새: '딱따구리'의 방언(함복)

④ 섞어찌개: 섞어(기본형: 섞다) + 찌개 - 연결어미 '어'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우리말 어법에 맞으므로 통사적 합성어 < 연결어미가 생략되었다면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 섞어찌개: (명사) 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서 끓인 찌개.

정답: ③

문2) <보기> 중 음운변동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 (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2)

< 보기 > 가. 발전 나. 국화 다. 솔잎 르. 독립

- ① 가, 나 ② 가, 르 ③ 나, 다 ④ 다, 르

문2)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2)

◆ 음운(音韻):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로, ‘님’과 ‘남’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ㅣ’와 ‘ㅏ’, ‘물’과 ‘불’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ㅓ’와 ‘ㅕ’ 따위를 이른다.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의 ‘르’를 영어에서는 ‘l’과 ‘r’의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가. 발전 - ㅂ + ㅈ + ㄹ + ㅈ + ㅈ / ㄴ (6개)

* [발전] - [ㅂ + ㅈ + ㄹ + ㅈ + ㅈ / ㄴ] (여전히 6개) < 된소리되기 >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등불’이 ‘[등뽕]’, ‘봄바람’이 ‘[봄빠람]’이 되는 것 따위이다. ≙ 경음화

* 된소리: 후두 근육을 긴장하면서 기식이 거의 없이 내는 자음. ‘ㄱ’, ‘ㄷ’, ‘ㅃ’, ‘ㅆ’, ‘ㅈ’ 따위의 소리이다.

르. 독립 - ㄷ + ㅓ + ㄱ + ㄹ + ㅣ / ㅂ (6개)

* [동립] - [ㄷ + ㅓ + ㅓ + ㄴ + ㅣ / ㅂ] (여전히 6개) < 비음화 현상 >

* 비음화: 어떤 음의 조음(調音)에 비강의 공명이 수반되는 현상. ‘십만’이 ‘[심만]’, ‘먹는다’가 ‘[멍는다]’가 되는 것 따위이다. ≙ 콧소리되기.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ㅓ’, ‘ㅇ’ 따위가 있다.

◎영보이 암기tip) 비음을 내는 나무야 (ㄴㅓㅇ)

ㄴㅓ ㅓ ㅇ야 ~ ㄴㅓ ㅓ ㅇ야 ‘비음’을 내는 ㄴㅓ ㅓ ㅇ야 ~ ㄴㅓㅇ

나. 국화 - ㄱ + ㅈ + ㄱ + ㅎ + ㅌ (5개)

* [구과] - [ㄱ + ㅈ + ㅈ + ㅌ] (4개로 변함) < 축약 현상 >

*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縮約)

* 국화의 받침 ‘ㄱ’과 ‘화’의 ‘ㅎ’이 합쳐져서 ‘ㅌ’으로 축약됨.

다. 솔잎 - ㅅ + ㅓ + ㄹ + ㅣ + ㅍ (5개) < 받침이 아닌 ‘ㅇ’은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잎’의 ‘ㅇ’은 음운에 포함하지 않음 >

* [솔립] - [ㅅ + ㅓ + ㄹ + ㄹ + ㅣ] / ㅍ (6개로 변함) < 유음화 현상 >

* 유음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한라’가 ‘[할라]’, ‘실눈’이 ‘[실룬]’이 되는 것 따위이다.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국어의 자음 ‘ㄹ’ 따위이다.

정답: ③

문3)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3)

- ① 신리: Sin-li
- ② 일직면: Iljik-myeon
- ③ 사직로: Sajik-ro
- ④ 진량읍: Jillyang-eup

문3)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3)

① 신리: Sin-li (X) → Sin-ri

◆ 신리는 행정 구역으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신리, 평택시 진위면 신리, 화성시 정남면 신리 등이 있다.

◆ 신리[실리]: 신리는 [실리]로 발음되지만 ‘리’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ri’로 쓴다.

◆ 그리고 [실리]라 발음되지만 행정 구역의 경우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Sil-ri가 아니라 Sin-ri가 옳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 (-)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그러나 신리가 행정 구역이 아닌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해명하거나 이론을 편다는 뜻으로, 소송 사건을 변론하고 심리함을 이르는 말’로 쓰일 경우에는 ‘silli’로 써야 한다. 또한 행정 구역이 아니므로 붙임표도 없다.

② 일직면: Iljik-myeon (O)

◆ [일찍면]으로 발음하지만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jj’가 아니라 ‘j’가 옳다.

③ 사직로: Sajik-ro (O)

◆ ‘길’을 가리키는 ‘로’는 ‘ro’라 쓴다. 그러나 지명을 의미할 때는 자음동화 등의 음운 현상을 반영한다. < 예)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

④ 진량읍: Jillyang-eup (O)

◆ ‘진량읍’은 [질량읍]으로 발음되어 유음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질량(리리)]의 유음화를 반영하여 ‘ll’로 표기한다.

정답: ①

문4) <보기> 속 화자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4)

< 보기 > 넓은 도로 위로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고 간발의 차이로 나는 그를 피해 비켜섰다. 다갈색 바지에 흰 면 셔츠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짐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퍽,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버스가 당도했고 나는 버스를 탔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마침 도착한 버스에 탔다. 그게 다였다.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때민 것도 아닌데…… 나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툭툭 털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

- 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
- ② 지나간 일이라도 시비는 가려야 한다.
- ③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 ④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문4)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4)

③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O)

◆ ‘넓은 도로 위로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고 간발의 차이로 나는 그를 피해 비켜섰다. 다갈색 바지에 흰 면 셔츠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짐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퍽,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버스가 당도했고 나는 버스를 탔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마침 도착한 버스에 탔다. 그게 다였다.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때민 것도 아닌데…… 나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툭툭 털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

◆ 노인이 무더위 혹은 몸 상태 때문에 ‘나’한테 쓰러졌는데 버스가 당도했다고 노인을 돕지 않고 버스에 타버렸다.

◆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라는 표현은 ‘나’가 반어적으로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을 일으켜서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죄책감이 담겨있다.

◆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때민 것도 아닌데……’로 보아 노인이 넘어진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위기에 처한 노인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과 죄책감을 엿볼 수 있다.

④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X)

◆ 마지막 줄 '나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로 보아 내가 위기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 구해주겠지'하고 피할 것이다.

정답: ③

문5)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의 향가 작품이 아닌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5)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p.46 암기tip 꼭 짚어 밑줄 초대박 적중 >

< 보기 >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하심을 알 것입니다.

- 종략 -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문5)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5)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p.46 암기tip 꼭 짚어 밑줄 초대박 적중 >

◆ 이 작품은 충당사의 '안민가(安民歌)'이다. 안민가는 10구체 향가이다.

◆ 충당사의 '안민가': 신라 '경덕왕' 24년(765)에 충당사가 지은 향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바른길을 읊은 것으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cf. 녹읍: 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 벼슬아치에게 직무의 대가로 일정 지역의 수조권을 주던 일.

< 녹읍 부활(757, 통일신라 중대 경덕왕 대) > < 경덕왕: 성은 김(金). 이름은 현영(憲英).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제도와 관직을 당나라식으로 고치고 국내 지명도 한자식으로 고쳤다. 국학 진흥과 불교 중흥에 힘써, 통일 신라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재위 기간은 742~765년이다. >

① 원왕생가(願往生歌): 신라 문무왕 때 광덕(廣德)이 지은 향가. 달을 서방 정토의 사자(使者)에 비유하여 그곳에 귀의하고자 하는 불심(佛心)을 노래한 것으로, 10구체이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② 처용가(處容歌):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은 향가(鄉歌). 아내와 동침하던 역신을 물리친 노래로, 8구체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고려 가요의 하나. 신라 때의 '처용가'를 계승한 것으로, 처용이 역신을 쫓아내는 내용이다. 처용무를 추면서 함께 불렀다.

● 8구체 형식의 향가

● 득오의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죽지랑을 추도하는 노래. < 모 - 8구체 >

● 처용의 '처용가(處容歌)' -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노래. < 처 - 8구체 >

☺영보이 암기tip) < 모 - 8 / 처 - 8 >

1)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신라 효소왕 때 득오가 지은 향가. 스승인 화랑 죽지랑을 사모하여 지은 것으로, 8구체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③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신라 경덕왕 때 충담사가 지은 향가. 화랑 기파랑의 고결한 인격을 밤하늘의 달빛과 시냇물, 그리고 서리에 시들지 않는 잣나무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으로, 10구체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④ 혜성가(彗星歌): 신라 진평왕 때 용천사가 지은 10구체 향가.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작가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괴변이 없어지고 마침 신라를 침범하였던 왜병도 물러갔다는 내용으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혜성가(彗星歌)는 현전하는 '최초의 10구체' 형식의 향가이다.

정답: ②

문6)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6)

- ① 손난로 ② 불놀이 ③ 찰나 ④ 강릉

문6)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6)

① 손난로[손~~날~~로]: '로'의 'ㄹ'의 영향을 받아 '난'의 'ㄴ'이 [ㄹ]로 변하는 역행(역방향) 동화이다. < 역행(역방향) 동화, 유음화, 교체 >

◆ 동화의 방향은 역방향(←)이다.

◆ 유음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한라'가 '할라', '실눈'이 '실룬'이 되는 것 따위이다.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국어의 자음 'ㄹ' 따위이다.

◆ 교체(交替):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② 불놀이[불~~로~~리]: '불'의 'ㄹ'의 영향을 받아 '놀'의 'ㄴ'이 [ㄹ]로 변하는 순행(순방향) 동화이다. < 순방향 동화, 유음화, 연음연상('놀'의 'ㄹ'이 '이' 안으로 들어감) >

◆ 동화의 방향은 순방향(→)이다.

cf. 주요한의 '불놀이': 주요한의 산문시. 어두운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노래하였다. 우리 시의 전통적인 기본 율조에서 벗어나 자유시의 형식을 취하였고 당대에 우리 문학에 널리 퍼져 있던 계몽성으로부터 벗어나 주관적 정서를 읊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19년 《창조》에 발표되었다.

③ 찰나[찰~~라~~]: '찰'의 'ㄹ'의 영향을 받아 '나'의 'ㄴ'이 'ㄹ'로 변하는 순행(순방향) 동화이다. < 순방향 동화, 유음화, 교체 >

◆ 동화의 방향은 순방향(→)이다.

◆ 찰나(刹那): 어떤 일이나 사물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④ 강릉[강~~능~~]: '강'의 'ㅇ'의 영향을 받아 '릉'의 'ㄹ'이 'ㄴ'으로 변하는 순행(순방향) 동화이다. < 순방향 동화, 비음화(ㄴ, ㄹ, ㅇ), 교체 >

◆ 동화의 방향은 순방향(→)이다.

정답: ①

문7)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7)

- ①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 ②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 ③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 ④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문7)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7)

①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X) → 택 or 집에 있으신가요?

◆ 부장님의 home이라면 ‘택’이 적절하고 출가한 ‘따님’의 home이라면 ‘집’이라 해도 무방하다.

◆ 부장님의 따님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가 적절하다.

◆ ‘있다’의 간접 높임은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이다.

◆ 계시다는 주체높임법이다. 부장님이 아니라 따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간접높임법을 쓴다. ‘있다’의 간접높임은 ‘있으시다’가 옳다.

◆ 주체 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문장의 주체를 높여 표현한다.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어머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위이다. - / 선생님은 택에 계셨다. / 할머니께서 귀가 밖으신 편입니다.

②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O)

◆ 키는 담임 선생님의 신체 일부이므로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크다’의 간접 높임인 ‘크시다’가 옳다.

③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O)

◆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높이는 것이므로 ‘멋지다’의 간접높임인 ‘멋지세요, 멋지십니다’가 옳다. 따라서 올바르게 쓰였다.

④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O)

◆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을 높이는데 간접 높임을 써야 하므로 ‘있다’의 간접높임인 ‘있으시다’가 옳다. 따라서 의문문인 ‘있으세요?, 있으십니까?’로 올바르게 쓰였다.

정답: ①

문8) <보기>의 내용 중 밑줄 친 ‘쓰다’의 쓰임이 다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8)

< 보기 >

- ㄱ.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 ㄷ. 공원묘지에 묘를 쓰다.
- ㄹ.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 ㅁ. 입맛이 써서 맛있는 게 없다.
- ㅂ.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 ① ㄱ - ㄷ ② ㄴ - ㅁ ③ ㄷ - ㄹ ④ ㄹ - ㅂ

문8)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8)

◆ 다의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몸통 아래에 붙어서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걷거나 뛰게 하는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 ‘지겟다리’ 처럼 ‘물건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이른다. 그런데 **다의어**는 동음이의어와는 달리 **어느 정도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ㄱ.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wright / 붓글씨를 쓰다: write calligraphy)
 - * 쓰다: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 < calligraphy: 달필, 서도, 서예, 필적 >
-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누명을 쓰다: be falsely charged = be falsely accused)
- ㄷ. 공원묘지에 묘를 쓰다. (묘를 쓰다: ge/[secure a grave site and bury sb)
 - * 쓰다: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
 - < grave site: 분묘지 / bury: 묻다, 덮다 >
- ㅁ. 입맛이 써서 맛있는 게 없다. (bitter)
 - * 쓰다: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 < bitter: 쓴, 씹스레한, 모진, 호된, 괴로운 몹시 분한 >
 - cf. 쓰니 시어머니: 흔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살게 굴을 이르는 말.

◆ 동음이의어는 의미의 유사성이 없고 사전에 다른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ㅁ’은 다의어가 아니라 ‘동음이의어’이다.

- ㄹ.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use / 반말을 쓰다: use crude talk)
 - * 쓰다: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
 - < crude: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미숙한, 버릇없는, 품위 없는 >
 - cf. 싸라기밥을 먹었나: 쌀이 부서져서 반 토막이 된 싸라기로 지은 밥을 먹었느냐는 뜻으로, 상대방이 반말 투로 나올 때 빈정거리는 말.
- ㅂ.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use, spend / 시간을 쓰다: spend time)
 - * 쓰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

- ◆ 다의어는 어느 정도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 반말을 '쓰다'와 시간을 많이 '쓰다'에서 의 '쓰다'는 모두 '사용하다'는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이 둘은 다의어이다.
- ◆ **다의어**는 사전에 **하나의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 하지만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는 **연관성이 없고** 사전에 **다른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정답: ④

문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채형 문9)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 514 초대박 적중 >

< 보기 >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

- ① 구체적 시공간을 제시하여 역사적 배경을 환기한다.
- ②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숨 막히던 상황이다.
- ③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 ④ 수심은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한다.

문9)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채형 문9)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 514 초대박 적중 >

- ◆ 김종삼의 '민간인'
 - *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을 다루고 있다.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
 - * 의도적인 행갈이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 절제된 시어와 간결한 시행으로 감정을 응축하고 있다.
 - *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긴박했던 월남 당시 아이가 울어 입을 막아 아이가 죽음** >

- ① 구체적 시공간을 제시하여 역사적 배경을 환기한다. (O)
 - ◆ 시간적 배경: 1947년 봄 심야
 - ◆ 공간적 배경: 황해도 해주의 바다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 ◆ 역사적 배경: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긴박했던 월남 당시 아이가 울어 입을 막아 아이가 죽음 >

②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숨 막히던 상황이다. (O)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로 보아 깊은 밤 몰래 월남할 때의 숨 막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X)

◆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 아니라 긴박했던 월남 당시 아이가 울어 입을 막아 숨이 막혀 죽게 된 것이다.

④ 수심은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한다. (O)

◆ 수심(水深)은 사전적으로 ‘물의 깊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월남을 무사히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라고 근심하는 수심(愁心)의 뜻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cf. 水深(수심: 물의 깊이)은 深(깊을 심)을 쓰는데 ‘彳(물 수)’가 들어간다. / 愁心(수심: 매우 근심함)은 愁(시름 수)를 쓰는데, ‘心(마음 심)’이 들어간다.

정답: ③

문10)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0)

< 보기 >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 라 부른다.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위태롭다.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수입이 장기적으로 불안해지는 추세와 함께 이른바 마비 현상이라 부르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불안과 욕구라는 양극단 중 어느 한쪽도 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심적인 경련과 리듬 상실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모든 정상적인 소비 현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는 만성 자제력 상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향후 몇 년 안에 달라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 다비트 보스하르트, 『소비의 미래』 -

- ① 철수 -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야.
- ② 영희 - 오늘날은 소비의 위기 시대이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어.
- ③ 영수 -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 ④ 순희 -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

문10)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0)

① 철수 -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야. (O)

◆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로 보아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② 영희 - 오늘날은 소비의 위기 시대이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어. (O)

◆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로 보아 오늘날 같은 소비의 위기 시대에는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영수 -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O)

◆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 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로 보아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순희 -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 (X)

◆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 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로 보아 끊임없는 소비와 대량소비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 ④

문11) <보기>의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절절하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1)

방의 넓이는 10홀, 남으로 외딴문 두 개 열렸다. 한낮의 해 짝어, 밝고도 따사로워라.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갖 책 갖추었다. 쇠코잠방이로 넉넉하니, 탁문군(卓文君)의 짝일세. 차 반 사발 따르고, 향 한 대 피운다. 한가롭게 숨어살며, 천지와 고금을 살핀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 말하면서, 누추하여 거처할 수 없다 하네. 내가 보기엔, 신선이 사는 곳이라, 마음 안온하고 몸 편안하니, 누추하다 뉘 말하는가.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몸과 명예가 모두 썩는 것. 집이야 측대로 엮은 거지만,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무슨 대수랴.

- ①安分知足 ②艱難辛苦 ③貧而無怨 ④簞食瓢飲

문11)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1)

◆ 위 글은 허균의 ‘누추한 내 방’[陋室銘(누실명)]이다. 누추하고 허름하게 불일지라도 마음 편안하게 만족하며 살아감을 엿볼 수 있다.

①安分知足(안분지족): 안(편안 안) 분(나눌 분) 지(알 지) 족(발 족).

1)의미: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 유의어

1)安貧樂道(안빈낙도): 安(편안 안) 貧(가난할 빈) 樂(즐길 낙(락)) 道(길 도).

a)의미: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②艱難辛苦(간난신고): 艱(어려울 간) 難(어려울 난) 辛(매울 신) 苦(쓸 고, 땅 이름 호)

1)의미: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

◆ 이 글은 '가진 게 많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담고 있다. 따라서 艱難辛苦(간난신고)처럼 고생스럽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③貧而無怨(빈이무원): 貧(가난할 빈) 而(말 이을 이) 無(없을 무) 怨(원망할 원, 쌓을 온)

1)의미: 가난하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않음.

④簞食瓢飲(단사표음): 簞(소쿠리 단) 食(밥 식, 먹이 사) 瓢(바가지 표) 飲(마실 음).

a)의미: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 유의어

1)簞瓢陋巷(단표누항): 簞(소쿠리 단) 瓢(바가지 표) 陋(더러울 누(루)) 巷(거리 항).

a)의미: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정답: ②

문12) <보기>를 읽고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12)

< 보기 >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 그것을 종이로 찍어낸 소설책을 말한다. 주로 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방각본 소설은 종이와 나무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고, 인구가 많아 독자의 수요가 많은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주로 간행되었다. 그 중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고 부른다.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

- ① 한 작품 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 ②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 ③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 ④ 분량이 긴 작품은 품과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12)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12)

① 한 작품 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 ‘그 중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고 부른다.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로 보아 한 작품 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X)

◆ ‘그 중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고 부른다.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로 보아 서울과 안성을 오가며 찍어낸 것처럼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 ‘주로 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방각본 소설은 종이와 나무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고, 인구가 많아 독자의 수요가 많은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주로 간행되었다.’로 보아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④ 분량이 긴 작품은 품과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 그것을 종이로 찍어낸 소설책을 말한다.’로 보아 분량이 긴 작품은 그만큼 나무판에 새길 양이 많고 또한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②

문13)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3)

-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번 휴가에 발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문13)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3)

-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X) → 먹은V지
 - ◆ ‘-지’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경우에는 ‘-지’의 앞말과 띄어 쓴다.
-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X) → 관계없이
 - ◆ ‘관계없이’는 ‘부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 ‘관계없다’는 형용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③ 이번 휴가에 발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X) → 발리섬 < 2017.06.01.개정 >

	개정 전	개정 후
외래어에 붙을 때	그리스 어, 그리스 인, 게르만 족, 발트 해, 나일 강, 에베레스트 산, 발리 섬, 우랄 산맥, 데칸 고원, 도카치 평야	그리스어, 그리스인, 게르만족, 발트해, 나일강, 에베레스트산, 발리섬 , 우랄산맥, 데칸고원, 도카치평야
비외래어에 붙을 때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 낙동강, 설악산, 남이섬, 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 낙동강, 설악산, 남이섬, 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 이번 개정에 따라 띄어쓰기가 변경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제시된 말들은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

하던 것들인데, 개정 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관계없이 모두 앞말에 붙여 쓰게 됩니다.

○ 가(街), 강(江), 고원(高原), 곳(串), 관(關), 궁(宮), 만(灣), 반도(半島), 부(府), 사(寺), 산(山), 산맥(山脈), **섬**, 성(城), 성(省), 어(語), 왕(王), 요(窯), 인(人), 족(族), 주(州), 주(洲), 평야(平野), 해(海), 현(縣), 호(湖) (총 26항목)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O)

◆ 비가 올 듯하다.(O) / 비가 올듯하다.(O)

◆ 비가 올 듯도 하다. (O) / 비가 올듯도하다.(X)

◆ 한글맞춤법 제3절 제47항 해설보기: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도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양하다	학자인 양한다.	학자인양한다.
체하다	모르는 체한다.	모르는체한다.
듯싶다	올 듯싶다.	올듯싶다.
뻔하다	농칠 뻔하였다.	농칠뻔하였다.

◆ 다만,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동사인 경우는 (보조 용언) 붙여 쓰지 않는다. 조사가 개입되는 경우는, 두 단어(본 용언과 의존 명사) 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제42항 규정과도 연관되므로, 붙여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본 용언이 합성어인 경우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 쓰도록 한 것이다.

O	X	O	X
아는 체를 한다	아는체를한다	밀어내 버렸다	밀어내버렸다
비가 올 듯도 하다	올듯도하다	잡아매 든다	잡아매든다
값을 물어만 보고	물어만보고	매달아 놓는다	매달아놓는다
믿을 만든 하다	믿을만은하다	집어넣어 든다	집어넣어든다

정답: ④

문14) 밑줄 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 14)

-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 ②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 ③ 새 옷을 입을 보았다.
- ④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문14)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14)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가셨다: 본용언, 본동사)

↓ ↓
take go

◆ 이 문장에서 ‘들다’는 ‘take’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이자 본동사**
● 이 문장에서 ‘가셨다’는 ‘go’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이자 본동사**

②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보조 용언, 보조 동사)
◆ ‘끝내다’가 동사이므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보조 동사가 된다.
◆ 못하다: (보조 동사)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다 /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하다 / 배가 아파 밥을 먹지 못하다.
● 못하다: (보조 형용사)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
● 편안하지 못하다 / 아름답지 못하다/음식 맛이 좋지 못하다. /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③ 새 옷을 입어 **보았다**. (보조 용언, 보조 동사)
↓ ↓
wear see(X) < ‘보았다’는 본래 의미인 ‘보다(see)’의 뜻이 없으므로 보조 동사 / 또한 보조 동사는 본동사의 품사를 따라가므로 ‘입다’가 동사이므로 ‘보았다’도 동사(보조 동사)이다. >

④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보조 용언, 보조 동사)
↙ ↘
make fun of touch(X) < ‘대다’는 본래 의미인 ‘달게 하다’의 뜻이 없으므로 보조 동사 / 또한 보조 동사는 본동사의 품사를 따라가므로 ‘놀리다’가 동사이므로 ‘대다’도 동사(보조 동사)이다. >

정답: ①

문15)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15)

< 보기 >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빠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 주택, 나아가 저렴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 ②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 ④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문15)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회 7급 B책형 문15)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O)

◆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로 보아 필로티 건축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는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O)

◆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로 보아 법정 주차대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필로티 건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O)

◆ ‘세월호 평형수가 저림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 주택, 나아가 저렴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로 보아 1970, 80년대 사회적 문제가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X)

◆ 유추(類推):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추리한다.

◆ ‘세월호 평형수가 저림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에서 ‘듯이’가 쓰였는데, ‘듯이’는 유추(類推)의 방식을 사용할 때 종종 쓰인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듯이’는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유추(類推)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 ④

문16)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6)

< 보기 >

- ㄱ.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 의 8자만 쓰였다.
- ㄴ. 사잇소리에는 ㅅ 과 ㅈ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 ㄹ.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 ㅁ. ㅇ 을 순음 아래 이어쓰면 순경음이 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ㄹ, ㅁ

문16)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6)

◆ 중세 국어: 고려가 건립된 10세기 초부터 임진왜란이 발생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 이 시기의 국어는 성조가 있었고,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으며, 동사 어간끼리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ㄴ. 사잇소리에는 ‘ㅅ’과 ‘ㅈ’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X) → 사잇소리는 ‘ㅅ, ㅈ’뿐만 아니라 ‘ㄱ, ㄷ, ㅂ, ㅃ(순경음 비읍, 가벼운비읍), ㅎ(여린히읃)’등도 쓰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시옷 등은 조선 성종 이후 ‘ㅅ’으로 획일화되었다.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X) →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앞에 한자를 병기했다. 다시 말해 한자는 왼쪽,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한자 오른쪽에 병기했다.

- ◆ 乃냉終중 ㄱ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는 나라
- ◆ 물읃 字중 ㅣ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ㄱ.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만 쓰였다. (O)

◆ 중세 국어는 받침으로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만 쓰였다.(팔종성가족용법)

◆ 팔종성가족용법(八終聲可足用法): 훈민정음 해례의 종성해에서 종성에 쓰는 글자는 팔종성으로 충분하다는 원리.

ㄹ.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O)

◆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훈민정음에서,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종성의 제자 원리(制字原理).

ㅁ.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O)

◆ 순경음(脣輕音): 고어에서, 입술을 거쳐 나오는 가벼운 소리. 《훈민정음》에서 순음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ㄹ’, ‘ㄴ’, ‘ㅃ’, ‘ㅍ’ 따위이다. ㄴ가벼운입술소리·경순음·입술가벼운소리.

◆ 순음(脣音): (=양순음)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ㅂ’, ‘ㅃ’, ‘ㅍ’, ‘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답: ④

문17) <보기>의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7)

< 보기 >

(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이여,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이제 님을 어이 할까나

(나) 生死 길흔 / 이에 이샤매 머뭇거리고/나논가늑다 말스도 / 몬다 니르고 가늑닛고
어느 古슬이른 브르매 / 이에 더에 브러딜 님곤 / 흐든가지라 나고 / 가논 곧 모드론
더 /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 道 닷가 기드리고다

- 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 ② 임과의 사별을 노래했다.
- ③ 승화, 초월 양상이 보인다.
- ④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문17)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7)

(가)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고조선 때의 노래. 백수(白首) 광부(狂夫)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는데, 이를 괭리자고(霍里子高)가 듣고 그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들려주자, 여옥이 공후(箜篌)를 연주하면서 곡조를 만들어 불렀다는 기록이 중국 진(晉)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에 전한다. 작자를 여옥으로 보는 설도 있다. ≍공후인.

公無渡河 < 그대 물을 건너지 마오, >
 公竟渡河 < 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
 墮河而死 < 물에 빠져 죽으시니 >
 當奈公何 < 이제 그대 어찌하리. >

- * 물에 빠진 남편과의 사별별로 인한 쓰라림.
- * 집단적인 노래가 아닌 개인적인 노래, 독백과 한탄(恨歎).
- * 물: ‘죽음’의 이미지[심상(心象)]가 들어있다.

(나)월명사의 ‘제망매가(祭亡妹歌)’

◆ 신라 경덕왕 때에 월명사가 지은 10구체의 향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릴 때에 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지전(紙錢)이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생사(生死) 길은 < 삶과 죽음의 길은 >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죽은 누이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 못다 이루고 어찌 갔습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여기 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 같은 나뭇가지에서 나고서도 >
 가는 곳 모르온저. < (누이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아아,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는 >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

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O)

- ◆ (가)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임에게 강물을 건너지 말라고 말한다. → 임이 강을 건넌다. → 임이 강에 빠져 죽는다. → 이제부터 나는 어찌 살란 말이나.'로 보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 (나)제망매가(祭亡妹歌): '누이가 죽었다.(과거) → 누이가 없다. (현재) → 미타찰에서 기다리겠다. (미래)'로 보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② 임과의 사별을 노래했다. (X) → 임과의 사별은 '(가)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만 해당됨.

◆ (나)는 죽은 누이와의 사별을 노래함.

◆ 임: 사모하는 사람. <임을 그리는 마음/임을 기다리다/임을 못 잊다/임과 이별하다.>

③ 승화, 초월 양상이 보인다. (X) → 고뇌의 종교적(불교적) 승화와 초월은 '(나)제망매가'만 해당됨.

④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X) → '(가)공무도하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함 < 이제 그대 어찌라리. > / '(나)제망매가'도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고는 100% 말할 수 없으나 굳이 두 작품에서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나)제망매가(祭亡妹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고뇌(苦惱)'를 종교적(불교적)으로 승화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문18)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7급 B책형 문18) < "한자 편"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암기 tip,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초대박 적중 / p.245, 253, 254, 260 / p. 257, 373, 274, 343, 344 >

< 보기 >

우리가 그 본성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을 불변의 것으로 고정화할 때, 우리는 옛날의 중국 여자의 전족처럼 살아있는 것의 성장을 왜곡화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고사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① 課程 - 纏足 - 矮曲 - 故死

- ② 過程 - 纏足 - 歪曲 - 枯死
- ③ 過程 - 填足 - 矮曲 - 枯死
- ④ 課程 - 填足 - 歪曲 - 故死

문18)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8)

② 過程(과정) - 纏足(전족) - 歪曲(왜곡) - 枯死(고사)

1)過程(과정): 過(지날 과, 재앙 화) 程(한도 정/길 정). 발음: [과:정](긴소리)

a)의미: 일이 되어 가는 경로.

◆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가리키는 過程(과정)은 '過(지날 과, 재앙 화) 程(한도 정/길 정)'을 쓰는데, '過(지날 과)'에는 '辶(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가고 '程(한도 정/길 정)'에는 '禾(벼 화)'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쉬엄쉬엄 가는**(辶: 쉬엄쉬엄 갈 착) 논두렁길 사이로 누런 **벼**(禾: 벼 화)를 보니 농민들의 농사일 過程(과정)이 눈에 선하다. 농민 여러분 감사히 먹겠습니다. ^^

*동음이의어 < 과정 >

1)課程(과정): 課(공부할 과/과정 과) 程(한도 정/길 정).

a)의미: 해야 할 일의 정도. / 일정한 기간에 교육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과목의 내용과 분량. / 대학에서, 일정한 분야의 교수·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절차.

b)예: 1학년 1학기 課程(과정) / 정규 課程(과정) 이수 계획 / 課程(과정)을 거치다.

◆ '1학년 1학기 課程(과정) / 정규 課程(과정) 이수 계획' 등에서 쓰이는 課程(과정)은 '課(공부할 과/과정 과) 程(한도 정/길 정)'를 쓰는데, '課(공부할 과/과정 과)'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가고 '程(한도 정/길 정)'에는 '禾(벼 화)'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이번 학기에는 **벼**(禾: 벼 화)를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지 흥부의 **말씀**(言: 말씀 언)을 듣는 정규 課程(과정)이 생겼다. 와우, 재밌겠다. ㅋㅋ

2)科程(과정): 科(과목 과) 程(한도 정/길 정).

a)의미: 학과 과정.

b)예: 과정이 끝나다.

◆ '학과 과정'을 의미하는 科程(과정)은 '科(과목 과) 程(한도 정/길 정)'을 쓰는데, '科(과목 과)'에는 '斗(말 두)'가 들어가고 '程(한도 정/길 정)'에는 '禾(벼 화)'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여보, 집에 쌀이 없으니 학과 科程(과정)이 모두 끝나면 놀부 형님한테 가서 **벼**(禾: 벼 화) 한 **말**(斗: 말 두)만 빌려 오세요. 주걱으로 뽕 맞아도 절대 피하지 마시고요. 밥풀이라도 아쉬우니까요. 아이~ 배고파 ㄸㄸ

cf. 말: 부피의 단위.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말은 한 되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ㄴ두(斗).

2)纏足(전족): 纏(엮을 전) 足(발 족, 지나칠 주). 발음: [전:족](긴소리)

a)의미: 중국의 옛 풍습의 하나. 여자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들을 어릴 때부터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 넣듯 힘껏 묶어 형겅으로 동여매어 자라지 못하게 한 일이나 그런 발을 이른다.

◆ 중국의 옛 풍습의 하나인 纏足(전족)은 '纏(엮을 전) 足(발 족)'을 쓰는데, '纏(엮을

전)’에는 ‘糸(가는 실 사/떡)’이 들어가고 ‘足(발 족)’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가는 실(糸: 가는 실 사/떡)로 발가락을 동여매는 纏足(전족)은 발(足: 발 족) 전체가 아픈데 왜 하는 거냐? 하지 마! 발 아프단 말이야!

*동음이의어

1) 填足(전족): 填(메울 전, 진정할 진) 足(발 족, 지나칠 주)

a) 의미: 모자라는 것을 채움. 발음: [전:족](긴소리)

◆ ‘모자라는 것을 채움’을 가리키는 ‘填足(전족)’은 ‘填(메울 전, 진정할 진) 足(발 족)’을 쓰는데, ‘填(메울 전)’에는 ‘土(흙 토)’가 들어가고 ‘足(발 족)’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배가 많이 고프면 흙(土: 흙 토)에 묻어둔 돼지 족발(足: 발 족)로 빈속을 填足(전족)하여라.

3) 歪曲(왜곡): 歪(기울 왜) 曲(굽을 곡).

a) 의미: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b) 영어사전: pervert(왜곡하다, 비틀어지게 하다), distortion(왜곡, 곡해), distort(비틀다, 왜곡하다), twist(꼬다, 감다, 곡해(曲解)하다).

★歪曲(왜곡)의 ‘왜’자는 歪(기울 왜)이다. 또한 歪(기울 왜)는 ‘丕(아니 불)’이 들어간다. 그리고 ‘곡’자는 ‘曲(굽을 곡)’ 그 자체이다.

◎영보이 암기tip) 영수는 피자 두 판을 혼자 먹지 않았다고(不: 아니 불) 사실을 歪曲(왜곡)하였다.

* 헛갈리는 한자어

1) 正鹄(정곡): 正(바를 정) 鹄(고니 곡/과녁 곡). 발음: [정:곡](긴소리)

a) 의미: 과녁의 한복판이 되는 점으로 목표나 핵심을 뜻하는 말.(O)

★正鹄(정곡)의 ‘정’자는 ‘正(바를 정) 그 자체’이고, ‘곡’자는 鹄(과녁 곡)이다. 또한 鹄(과녁 곡)에는 ‘鳥(새 조)’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새(鳥: 새 조)를 사냥할 때는 바르게(正: 바를 정)잡아야 한다. 영보이는 영수에게 새를 바르게 잡지 않았다는 사실로 正鹄(정곡)을 찔렀다.

4) 枯死(고사): 枯(마를 고) 死(죽을 사)

a) 의미: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음. ‘말라 죽음’으로 순화.

◆ ‘말라 죽음’을 가리키는 枯死(고사)는 ‘枯(마를 고) 死(죽을 사)’를 쓰는데, ‘枯(마를 고)’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가고 ‘死(죽을 사)’는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죽은(死: 죽을 사) 나무(木: 나무 목)라도 정성으로 보살피면 枯死(고사)를 면할 수 있다.

* 동음이의어 < 고사 >

1) 考查(고사): 考(생각할 고/살필 고) 査(조사할 사). 발음: [고:사](긴소리)

a) 의미: 자세히 생각하고 조사함. /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에서 쓰이는 ‘考查(고사)’는 ‘考(생각할 고/살필 고) 査(조사할 사)’를 쓰는데, ‘考(생각할 고/살필 고)’에는 ‘耂(늙을 로)’가 들어가고 ‘査(조사할 사)’에는 ‘冫(또 차)’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이번 학기말 考查(고사)에서 또(冫: 또 차)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오 늘따라 무척 늙어(耂: 늙을 로) 보이는구나. 내 나이 이제 중3 16살 ㄱㄱ

2)告祀(고사): 告(고할 고, 뵈고 청할 곡) 祀(제사 사). 발음: [고:사](긴소리)

a)의미: 액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 ‘告祀(고사)를 지내다’에서처럼 ‘告祀(고사)’는 ‘告(고할 고)’에는 ‘口(입 구)’가 들어가고 ‘祀(제사 사)’에는 ‘巳(뱀 사)’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합격하게 해달라고 告祀(고사)를 지내는데 지나가던 뱀(巳: 뱀 사)이 떡 하나 달라고 口(口: 입 구)를 짚 벌리고 있다. 미운 뱀 떡 하나 더 준다. 였다, 먹어라. 날름 ~ 날름 ~ .

3)固辭(고사): 固(굳을 고) 辭(말씀 사)

a)의미: 제의(提議)나 권유(勸誘) 따위를 굳이 사양(辭讓)함. ‘거절함’, ‘굳이 사양함’으로 순화.

◆ ‘굳이 사양함’을 가리키는 ‘固辭(고사)’는 ‘固(굳을 고) 辭(말씀 사)’를 쓰는데, ‘固(굳을 고)’는 ‘口(에워쌀 위)’가 들어가고 ‘辭(말씀 사)’에는 ‘辛(매울 신)’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굳이 固辭(고사)하는데도 매운(辛: 매울 신) 떡볶이를 한입만 먹어보라고 내 주위를 에워싸고(口: 에워쌀 위) 있다. 아이, 씨~ 매워. 엄마 ~ 시원한 물 줘! 물이 없는데.. 그럼 냉장고에 있는 맥주라도 주던지... 내 나이 중3 16살...

4)故事(고사): 故(연고 고) 事(일 사). 발음: [고:사](긴소리)

a)의미: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 옛날부터 전해 오는 규칙이나 정례(定例).

◆ 故事成語(고사성어)처럼 ‘故事(고사)’는 ‘故(연고 고) 事(일 사)’를 쓰는데, ‘故(연고 고)’에는 ‘夂(칠 복)’이 들어가고 ‘事(일 사)’는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머리 툭툭 치는(夂: 칠 복) 일(事: 일 사)은 삼가 줘. 故事成語(고사성어) 자꾸 까먹잖아.

정답: ②

문19) 고유어에 대한 풀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9)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암기tip 꼭 읽어 초대박 적중 p. 196, 208, 209, 214 >

- ①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 ②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 열 마리를 짚으로 엮은 것
- ③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 ④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문19)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19)<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암기tip 꼭 읽어 초대박 적중 p. 196, 208, 209, 214 >

①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뱃사람들의 말로, ‘서풍’을 이르는 말. ≒가수알바람.

②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 열 마리를 짚으로 엮은 것 (X) → 열 마리씩 두 줄(총 20)

마리)

◆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

③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

④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 지청구: (= 꾸지람)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단위	의미	☺영보이 암기tip)
가리	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더미를 세는 단위. 한 가리는 스무 단	20-가리
-가웃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된 단위의 절반 정도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절반-가웃
갓	굴비, 비웃 따위나 고비, 고사리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갓은 굴비·비웃 따위 열 마리 . 또는 고비·고사리 따위 열 모숨 을 한 줄로 엮은 것을 이른다.	10-갓
강다리	쪼갠 장작을 묶어 세는 단위. 한 강다리는 쪼갠 장작 백 개 비를 이른다.	100-강다리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오십 개	50-거리
고리	소주를 사발에 담은 것을 묶어 세는 단위. 한 고리는 소주 열 사발 을 이른다.	10-고리
꾸러미	달걀 열 개 를 묶어 세는 단위.	10-꾸러미
담불	벼를 백 섬 씩 묶어 세는 단위.	100-담불
동	물건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동은 먹 열 점 , 붓 열 자루 , 생강 열 점 , 피륙 50필, 백지 100권, 꽃감 100점, 벚짚 100단, 조기 1,000마리, 비웃 2,000마리	먹, 붓-10-동 생강-10-동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 로 엮은 것. /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	20-두름
못	생선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못은 생선 열 마리 를 이른다. / 미역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못은 미역 열 장 을 이른다.	10-못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	
손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조기, 고등어, 배추 따위 한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 을 이르고, 미나리나 파 따위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이른다. < 고등어 따위는 두 마리 , 배추 따위는 두 통 >	2-손
쌈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쌈은 바늘 스물네 개 를 이른다.	쌈-24
우리	기와를 세는 단위. 한 우리는 기와 2천 장 이다	우리-2000
접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	100-접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스무 첩	20-제
죽	옷, 그릇 따위의 열 벌 을 묶어 이르는 말. 옷, 그릇 따위의 열 벌 을 묶어 세는 단위.	죽-10
축	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축은 오징어 스무 마리	20-축
쾌	복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쾌는 복어 스무 마리	20-쾌

정답: ②

문20)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20)

- ① -(으)려고 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② -더라도 는 -겠- 과 결합하지 못한다.
- ③ -거든 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 ④ -(으)ㄴ들 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의문문이어야 한다.

문20)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7급 B책형 문20)

① ‘-(으)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O)

◆ (싸이는) 새를 잡으려고 (싸이는 새에게) 돌을 던졌다.

선행절의 주어: 싸이

후행절의 주어: 싸이

◆ 샤넬은 무엇을 찾으려고 (샤넬은 그토록) 남의 가방을 뒤졌을까?

선행절의 주어: 샤넬

후행절의 주어: 샤넬

② ‘-더라도’는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O)

◆ -더라도: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도’보다 그 뜻이 강하다.

◆ 무슨 일이 있겠더라도 올해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X) →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 이 일은 누가 하겠더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X) → 이 일은 누가 하더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③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X) → 명령문이 와도 무방하다.

◆ -거든: 밥을 먹으려거든 나를 웃게 해라.(명령문) 너 조영구 다했다. 너무 심한 말 아니니? 흑흑 ㅏㅏ . 띠리리리리 ~ 영구 없다. ㅋㅋ 안 웃긴가요? 죄송합니다. ㅏㅏ

④ ‘-(으)ㄴ들’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 의문문이어야 한다. (O)

◆ -(으)ㄴ들: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라고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어떤 조건을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나타낸다. 뒤에 오는 말이 의문 형식이 올 때는 수사적 의문문이 된다.

◆ 배가 고프는데 풀뿌린들 못 먹을까?

선행절

후행절: 수사 의문문(의미: 배가 고프니 풀뿌리도 먹을 수 있지. >

◆ 수사 의문문: (=반어 의문문)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의문문. 예를 들어 “철수한테 책 한 권 못 사 줄까?”의 ‘못 사 줄까’는 ‘사 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정답: ③

- 영보이 저서 -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한자 & 고사성어 합권 >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한자 & 고사성어 분권 >

-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수정판) < 판매 중 >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